



# 섬진강 영예 살리기

최성민 · 한겨레신문 여론매체부장



**매화와** 산수유꽃 이야기, 지금은 먼 전설로 남아있는 섬진강변에 또 다른 전설이 재현되고 있다. 섬진강 물줄기 화개나루 바로 아랫녘 질푸른 여울목에선 이 땅에 반세기 만에 재현되는 '환희의 물장구'가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날카로운 지느러미 뜻을 세운 '섬진강 연어떼'가 50년 만에 귀향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섬진강엔 연어가 들끓어 '연어 반, 물 반'이었다고 한다. 일제시대엔 오늘의 양양 남대천보다 훨씬 연어가 많이 올라왔고, 이들은 모두 자연산란을 마치고 다른 물고기나 동물들의 먹이가 돼 섬진강 생태계 건강의 이음새 구실을 했다. 그러나 은어, 참계 등 맛있는 고기가 많은 섬진강에서 당시 연어는 '맛없는 고기'로 평가절하되었다. 연어는 바다에서 올라와 민물에 닿는 순간 혼인색을 띠면서 몸 안의 영양분을 알에 돌리기 때문에 몸체의 맛이 줄어든다. 여기에 강물에 산업화 물감이 들면서 섬진강 연어는 점차 자취를 감췄다. 그러다가 1993년 늦가을, 구례 사람 장용옥(51세, 섬진강환경어족보존회장)씨가 낚시를 하다가 1m가 넘는 이상한 물고기가 죽어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산란을 마치고 죽은 암수 연어들이었다. 자주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섬진강 연어는 그동안 스스로 어미의 강 섬진강 품 안에 돌아와 생명잇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씨는 마을 노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연어가 심진강 토종 물고기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곧바로 '심진강환경어족보존회'를 만들었고 '연어 되불러오기 운동'을 펼치기 위해 97년 양양내수면연구소에서 30만 마리의 연어 치어를 얻어와 심진강에 방류했다. 덕분에 2000년부터 어미 연어 떼들이 심진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것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2000년엔 어부들에게 9마리가 잡혔고 70~80마리가 구례군 마산면 수중보 턱밑까지 올라가 자연산란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이듬해(2001년)는 10월 중순부터 50~60마리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목격되었고 12월 말까지는

200~300마리가 돌아왔다.

어족보존회는 2001년 3월 초엔 어렵사리 구해온 연어 치어 48만 마리를 방류한 것을 비롯해서 해마다 수십만 마리씩 방류량을 늘려가고 있다. 방류 마릿수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가 1만 마리 이상이 돌아오면 '호·영남 화합 연어잔치'를 벌이면서 세계 최남단에서 나는 '심진강 연어'의 특성을 알릴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등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엔 12월초까지 벌써 수백 마리가 돌아왔다.

광양 다압면 백운산장 아래쪽 1km 지점 심진강에는 건너편 화개장터 쪽으로 파란 그물이 쳐져 있다. 심진강환경어족보존회, 광주전남 연어사랑시민모임, 장성내수면연구소 등이 연어의 자연산란을 보호하기 위해 쳐놓은 것이다. 바로 위에서 영호남 대교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연어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가장 물이 맑고 바닥이 고른 이곳에 알을 낳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물 앞 강바닥에는 연어들이 잔뜩을 헤집고 알을 낳은 구멍들이 보이고, 간혹 지느러미를 세우고 알 낳을 자리를 찾아다니는 연어들을 볼 수 있다.

물이 맑고 대숲이 주변을 둘러싼 이 물목은 연어의 회귀를 계기로 건강한 자연환경의 생명력을 분출하고 있다. 연어가 몰려오자 좋은 먹잇감을 쫓아 수달이 몰려오고 있다. 많을 때는 하룻밤에 10여 마리의 수달이 나타나 연어사냥을 하는 통에 다음날 아침에는 머리만 남은 죽은 연어가 강가에 덩굴고 있을 때도 있다. 장씨와 회원들은 개와 함께 24시간 연어를 지키고 있다. 또 연어그물 안에는 인근에서 사는 물까마귀들이 수시로 날아와 목욕을 하며 연어의 귀향을 반기듯 온갖 소리로 지저귀고 있다. 🌊



## \* 연어와 연어규약 \*

한국을 떠난 연어 치어는 4만 6000여km에 이르는 북태평양을 횡단해 베링해협~감차카반도~알래스카를 돌아 4~5년 뒤에 다시 태어난 강에 돌아온다. 그러나 회귀율은 겨우 1% 안팎으로 일본의 147분의 1 수준이다.

연어 치어는 방류된 직후 곧바로 바다로 향하지 않고 45일 정도 강에 머물면서 몇 년 뒤에 있을 모천회귀를 위해 '고향의 내음'을 체득한다. 이때 상당수가 다른 물고기나 오리 등 새들의 먹이로 잡아먹히고 만다. 또 가까스로 태평양 건너기에 성공한 연어들도 어미가 되어 돌아올 때 적지 않은 시련을 겪는다. 러시아, 미국, 캐나다, 일본 어부들이 중간에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기 때문이다. 일본의 세계적인 연어 산출항인 홋카이도 시베쓰항은 8%의 회귀율을 자랑하는데, 적지 않은 한국산 연어가 마지막 관문인 이곳에서 잡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연어에 표시가 없으므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는 방류하는 연어 치어에 표지를 달아 자국 어족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연어규약'에 가입해 있지 않아서 한국 어부가 외국 연안에서 연어 한 마리를 잡아도 석 달간 모든 어종 어로금지라는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이런 딱한 사정을 벗어나기 위해 '섬진강 연어 살리기 운동'을 벌이자는 게 섬진강환경여족보존회와 광주·전남 연어사랑시민모임 회원들의 애타는 호소다. 한국에서는 현재 양양 남대천 등 대어섯 곳의 하천에서 해마다 연어 방류를 하고 있다. 최대의 연어 방류지인 양양 남대천의 경우 한해에 3천만 마리 안팎을 방류해 0.6~1%의 회수율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남대천은 하폭이 좁은데다 골재채취와 오색약수 단지 등 상류 관광단지의 오염원 등으로 연어 수용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구나 '양양 남대천 연어축제' 같은 행사는 생명학대의 인상과 함께 연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한국의 '세계 연어규약' 가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식용 연어는 바다에서만 잡아야 하고, 민물에 닿자마자 혼인색을 띠면서 맛과 체질이 바뀐 연어는 산란용으로 보호하도록 연어규약에 규정돼 있다. 이 규약에 가입하려면 한 해에 1억 마리 이상의 연어 치어를 방류해야 하며 회귀율을 세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한국은 연어규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연어어획을 할 수 없어 한 해에 1억달러 이상 수입을 한다. 연어규약 가입과 막대한 연어 수입 비용을 아끼는 최선의 방법은 맑고 큰 강인 섬진강을 '한국 연어의 모천'으로 가꾸는 것이다.

특히 섬진강은 '세계 연어 산란의 최남단'이라는 중요한 학술·산업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인류의 '제2의 단백질'로 불리고 있는 연어의 자원화 영역을 남진·확대하는데 지표가 되는 강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섬진강 연어 살리기 운동'은 아직 섬진강환경여족보존회 등 민간 차원에만 머물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 ●●● (섬진강! 가는 길) \*

- \* 서울(호남고속도로)~전주~남원(지리산 횡단도로)~구례~간전교~백운산쪽 섬진강변길~백운산장. 백운산장에서 다압 쪽으로 1km쯤 내려가면 왼편 강물 위에 쳐놓은 연어그물과 텐트들이 보인다. 기차로 구례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면(2만원) 25분 걸린다. 구례읍이나 화개장터 쪽에 숙박시설이 좋다.
- \* 구례장이나 화개장터에는 끝물의 감이 많이 나와 있다. 한 접에 2만 5천~3만원.